



과학과 성경의 대화

버나드 램 지음 | 박지우 옮김 | IVP

과학과 신학 또는 기원 논쟁같은 내용은 학제적 특성을 보이며,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없으면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피상적인 내용만 다루거나 편향적 오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접했던 과학과 신학 관련 책들도 그러한 것들이 꽤 많았다. 그렇지만 버나드 램의 『과학과 성경의 대화』는 매우 탁월하게 이 학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신학과 과학 일반에 관련된 내용을 취급하며, 5장부터 8장까지는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등 과학 각 분야와 관련된 성경 해석을 기술한다.

책의 전반부

먼저 1장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사상적 전투에서 대패한 기독교의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해 다룬다. 기독교는 근대적 사고와의 전투에서 패자가 되었고 과학이 득세했다(21,22p). 주요한 패인은 기독교 측의 과학에 대한 무지와 부적절한 태도였다. 정통주의 기독교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던 면도 있지만, 과학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복음주의는 지나치게 좁은 관점으로 논쟁에 임했으며 심하게 단순화된 흑백논리를 적용했다

(23~25p). “복음주의가 19세기에 성경과 과학을 놓고 벌인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나타난 비극적 결과들”과 이로 인해 “기독교가 받은 타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26p)

초정통주의 입장이 복음주의 전체를 대변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기독교와 과학의 간극을 더 벌려 놓고 과학자들의 감정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35p). 따라서 이렇게 부조화를 일으키는 관점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내는 복음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

2장에서는 신학과 과학의 충돌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과학과 신학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신학자와 과학자가 범하는 잘못과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다룬다. 이와 함께 과학주의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 과학주의는 1) 과학적 방법과 신뢰할 만한 지식의 범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2) 환원주의적이며, 3) 목적론적 사고에 비합리적인 편견이 있고, 4)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자연과 관련된 성경 해석과 기독교 자연철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성경 해석 학자로서 저자의 전문성이 잘 발휘된다.

자연적 사물들과 관련된 성경의 언어는 “대중적이고

전과학적이며 비주장적”이다(82p). “성경은 사물의 실제 속성에 관해 이론화 하지 않는다.”(74p) 또한 성경은 당시 문화의 관점에서 쓰였다. 성경의 우주론도 이러한 바탕에서 해석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자연관의 특징은 1)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2)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로 유지된다고 분명히 주장하며, 3) 피조물에 대한 숭배를 일절 금지하고, 4) 자연의 규칙성은 하나님의 불변성으로부터 기인하며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성경은 5) 자연이 일과적(一過的)일 것으로 전망하며 6) 자연을 시험과 심판의 영역으로 본다. 성경의 창조론을 “약화시키고 희석시키고 모호하게 만들고 그 내용을 얼버무리며 타협하는 것은 성경에 부합하는 태도가 아니다”(90p). 하나님은 “자연, 도덕, 구속, 이성의 세계적 근거(world-ground)”이시다(91p). 하나님은 인과율에 구속 받지 않으시며 자신이 손수 지으신 창조물의 포로도 아니시다(92p).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미래에 하나님에 의해 종결될 것”이다(101p). “자연에 있는 것들의 유용성을 발견해 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자연의 비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치르는 시험의 일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가 없어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 내에서의 실존의 불완전함”은 “인간에게 내린 심판의 일부”가 되었다(105,106p).

이 장을 끝내며 저자는 과학철학에 해당하는 기독교적 자연철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연철학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과학이 지닌 더 광범위한 차원의 함의를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장은 성경에서 과학적 사실을 예기(豫期), 즉 일어나기 전에 기록해 놓았는지 질문하며, 성경의 구절들에서 “현대 과학의 비밀을 찾으려는 시도는 영감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153p).

책의 후반부

책의 후반부에서는 개별 과학과 성경내용을 다룬다. 저자는 점진적 창조론을 지지하며 온건한 일치론 및 회화일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점진적 창조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초월적 행위를 상정한다. 수직 종분화 또는 대진화는 즉성적 창조를 통해 일어나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수평 종분화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수평 종분화의 규모는 지질 기록과 생물학 실험으로 판단할 수 있다.”(322p) 이러한 점진적 창조는 24 시간을 하루로 하는 며칠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기적으로 창조한 “즉성적 창조”나 태초의 박테리아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 직접적인 신적 개입 없이 자연적인 과정을 통한 “안으로부터의 창조”를 말하는 유신진화론과는 상이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269p). 창조의 시간적 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가 실제 우주가 형성된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일치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온건한 일치론이다. 또한 창조의 6일은 문자 그대로의 날 또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회화적으로 제시한 날”이다(261p).

이러한 기본적 사고를 바탕으로 저자는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분야에서 과학과 성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것인지 서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이슈만 다루려고 한다.

먼저 천문학과 관련해서는 질서와 물질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과학자들이 다루는 물리 법칙은 현상론적인 것이다. 중력법칙을 다룰 때 기술하는 것은 ‘중력’이라고 명명한 것이 보이는 현상이다. 왜 중력법칙이라는 질서가 존재하는지, 왜 물질이 중력을 지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물자체(物自體)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놀라운 질서로부터 이 질서를 설계한 설계자에 대해 추론하게 된다.

우주의 미세 조정(fine tuning)은 설계자의 존재를 강력히 함의하고 있다.¹⁾

지질학 장에서는 성경해석학자로서의 역량이 돋보인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주류 지질학의 견해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단번의 전지구적 노아 홍수로 모든 대규모의 지질변동이 일어났다고 초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홍수지질학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성경의 창조 기사와 지질학적 발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검토한 후 국지적 노아 홍수와 점진적 창조론, 회화일 이론 및 온건한 일치론을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본다.

생물학에서는 저자가 매우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생물학과 관련해서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고민할 문제는 진화가 아니라 생물철학”이라고 강조한다(299p).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진화론이 지니고 있는 핵심적 문제점과 함의들을 탁월하게 전개하고 있다. 진화론은 기독교 형이상학적 체계에 반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345p), 진화론에 제한이 필요하며(323~332p) 진화는 한계 내에서 일어난다(314~323p). 저자는 유신 진화론자가 아니며 점진적 창조론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349p). 또한 저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점진적 창조론 같은 이론이 생물학 분야에서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에 비견될 새로운 생물학적 종합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323p).

인류학에 관련해서는 혼란스럽고 명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형질인류학의 연구 자체가 불명료한 점이 많은 것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

자는 인류학에 있어서도 과학자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분야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분야이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인류 기원의 문제는 ‘인류’에 대한 정의와 화석을 통한 실제 인류 여부의 판단 가능성 및 역사적 문서로서의 구약 성서(특히 창세기 5장)의 해석과 신뢰성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얹혀 있다. 화석의 외형적 모습이 비슷한 것 만으로서는 어떤 존재가 인간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만의 주요한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과 신학의 한 측면

저자가 이 책의 전반부에서 다룬 요지는 매우 설득력 있으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게을리해 왔던 과학과 성경의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필자는 과학과 신학 문제에 있어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려 한다.

현대에 ‘과학’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뢰감을 주는 용어가 되었다. 그것은 지난 수세기에 걸친 과학기술의 찬란한 성공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검증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날 과학은 지나치게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기독교는 과학이 있어야 할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 저자가 책 후반부에서 다루는 과학분야들은 모두 기원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역사과학의 성격을 띠는 분야이다. 이 분야들은 엄밀성에 있어서 물리나 화학과 같은 실험과학 분야보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모든 과학 분야가 동일한 엄밀성과 재현가능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물리법칙도 영원불변한 것은 아

1. Hugh Ross, *The Creator and the Cosmos* (3rd ed.;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01), 145–199.

니며 과거 어느 시점에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미래 새 창조의 때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오랜 과거에 실제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물리 법칙의 형태와 상수가 유지 보존된다면, 그것은 법칙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유지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구속되거나 자연법칙에 종속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적 근거이시며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념을 기반으로 한 정당화가 불필요한 기초적 신념(basic belief)이다.²⁾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현대인은 찬란한 과학이 기여한 현대주의적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현대주의에 의하면, 세상은 ‘일관적인’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변덕스러운’ 조물주의 창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사방에서 끊임없이 주어진다. 이에 의한 부작용은 가장 복음적인 기독교인 학자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필자 자신도 현대주의 침범 중의 하나인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종종 느끼고 있다. 과연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셔서 자연법칙을 무시하시고 창조와 기적을 베푸시는가? 내 생각에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높고 견고한 신적 법칙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우주와 생물, 그리고 인간의 기원 문제를 법칙과 우연을 강조하며 초월적 지성의 개입을 배제하는 과학과 자연주의의 손에 너무 쉽게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오늘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복음’을 제시하는 제사장은 신학자가 아니라 과

학자가 되어 버렸다. 더 나은 세상, 편리한 문명은 과학기술이 만드는 것이지 신학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모호한 논쟁이 아닌 진정한 ‘지식’(science)은 과학자의 소유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현대 학문세계에서는, 초월을 말하는 무지한 신학자, 실험적 증거를 보여주는 이성적인 과학자로 나뉘어진다. 이것이 제대로 된 상황인가?

역부족이든, 거만 때문이든, 과학을 무시하거나 조롱해 왔던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에 지나쳐 현대 문화의 조류를 따라 과학을 지나치게 높이고 수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과학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건설적 비판을 견지해야 한다. 『과학과 성경의 대화』에서 저자는 탁월하게 균형 있는 논의를 이끌어 간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류 과학의 기원론적 주장에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인 관점으로 과학을 대하는 상황에서 저술된 저서임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과학자로서 필자는 오히려 좀 더 의심의 눈초리로 해당 과학 분야를 들여다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과학과 성경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보기 드물게 잘 저술된 책이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분야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글 | 문준호

KAIST 내에 위치한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AIST에서 물리학으로 이학박사,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MA)를 취득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학회 총무를 거쳐 현재 학회 강사를 맡고 있다.

2. James F. Sennett ed., *The Analytic Theist: An Alvin Plantinga Reader*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102-161.